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2016 년 신년 메시지 >

# 세상의 빛 그리스도

총회장 김성제목사 (나고야교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새해에 주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일출처럼 재일대한기독교회 모든 교회와 전도소 위에 축복으로 빛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둠에 빛나는 생명의 빛 (4, 5 절) 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1~3 의 천지창조의 첫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서두에 함께 기록한 “태초에” 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태초”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어둠과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태초” 의 두 번째 진실의 “태초” 는 어둠과 혼돈의 고민과 고통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된 때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삶의 기쁨과 희망의 빛이 발하기 시작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은 4 절부터 첫 째날부터 6 일까지의 천지창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7 일 째에 안식일을 두는 것은 다시 한번 창세기 1 : 1-3 의 “빛이 있으라” 는 곳으로 되돌아 가서 지난 날들, 그리고 이 세상에 흑암과 혼돈에 노출되어 온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의 은혜에 “주님의 날” 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 장 12 절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흑암 (중오와 차별, 테러, 분쟁, 재해 등) 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처럼 흑암에 노출되면서도 흑암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 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놓이면 ① 우선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고, ②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고, 그리고 ③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목표도, 길도 잃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빛을 가진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며, 지금 여기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길 발견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바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 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둘러싼 흑암과 혼돈으로는 헤이트 스피치와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에 지금도 그 흑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 흑암과 혼돈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써 작년 11 월에 제 3 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를 동경 한국 YMCA 에서 개최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회의였으며 귀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흑암과 혼돈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비취 주시고, 이 세계에 파견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다시 생명의 빛에 비추임을 받았으므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쓰임받아 온 교회인가. 둘째로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제일 외국인 사회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더 나아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정의와 민족주의를 넘는 화해의 선교적 사명을 짊어지는 입장에 놓여 있는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함께 소수 민족에 대한 민족 중오와 민족주의를 넘어 살롬 (평화) 의 에큐메니컬 (초교파, 세계 교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큰 과제가 부여 되어 있는지가 나타났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각 교회는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세계에서조차 지극히 작은 교회인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눅 1:30) 는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이 몸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고 대답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약할 때야말로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일해 주실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빛을 발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 갑시다.

## 제 3 회 <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 국제회의의 공동성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우리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 3회 <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 국제회의를 동경 재일본한국 YMCA 에서 개최하였다. ‘함께 살고 서로 살리는 일본 사회를 향하여 - 일본과 세계와의 연대 속에 정의와 공생의 일본 사회가 되기 위하여’ 라는 주제하에 재일 코리안, 이주자, 아이누, 오키나와, 피차별부락민, 성적소수자 등의 마이너리티 (소수자),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WCC) 를 비롯한 남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인도, 달릿, 필리핀이주자, 대만, 대만원주민, 한국 등 세계 여러 교회의 대표자 약 133 명이 참가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증오언설, 憎惡言說) 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세계적인 제노포비아 (xenophobia, 외국인혐오), 헤이트크라임 (증오범죄, 憎惡犯罪) 의 과제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논의하였다.

일본 사회는 과거 조선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제복을 찢는 사건 등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한층 더 차별과 배타주의적 주장을 표방하는 단체가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헤이트스피치가 공공연하게 반복 확산되어, ‘구더기’, ‘바퀴벌레’, ‘비열한 놈들’, ‘죽어라’, ‘죽이겠다’ 와 같은 말들이 공포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을 향한 이와 같은 언동은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생명, 정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고 비인간화하도록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와 사회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과 그에 근거하는 폭력이 방지되고 있다. 헤이트스피치가 방지된 상태대로라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과격한 폭력이 수반된 범죄행위로까지 발전하고 만다는 것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례는 보여 주고 있다.

헤이트스피치가 발생하는 근저에는 명백히 역사 수정주의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쟁 및 전후 책임이라는 과거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했던 가해의 역사 인식을 말소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가와 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인종차별 금지법을 필두로 하는 인권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 개찬 (改竄) 하고 거듭 전쟁 중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역사 수정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더우기 아베 신조 수상을 필두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참하여 역사 수정주의가 국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가 차별 및 배타주의를 조장하고 헤이트스피치, 헤이트크라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서 군비 강화, 전쟁 추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지금 세계에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빈부의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장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사회적 모순이 사회적 관용을 무너뜨리며 마이너리티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및 공포로서 분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외국인 혐오의 문제로 인해 각국에서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히 수용하는 일조차 어렵게 되고 있다. 이민자에게 조건을 붙여서 선별, 서열화하는 현상은 이민자를 배제 및 동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민자들과 실제로 만나는 가운데 이민자가 ‘생명의 존엄성’ 을 지닌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때 비로서 내면의 적의 (敵意) 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기독교회는 무력, 전쟁으로 향하는 길을 명확하게 부정하는 평화의 길, 평화와 복지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생의 사회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마이너리티의 울부짖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음성 듣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호소에 응답하여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공생의 천막을 넓혀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신학과 선교, 교회 형성의 중요한 과제로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용이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약자들이 버림받음으로 사회의 분열이 깊어지고 증오와 대립이 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보와 자원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사회는 증오에 의한 폭력에 유린 될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인종 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폭풍우가 세계화와 더불어 불어닥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증오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인성 (全人性) 을 회복하기 위해 공생의 천막을 넓히는 선교의 길을 현대의 기독교회는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류자 (외국인, 이민자) 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적의의 연쇄를 끊어 내고 화해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기류자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스스로 기류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평화적 공생을 향한 희망으로 변화되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기 위해 불가결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적의와 증오를 이기기 위한 참된 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의 사회에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일본의 교회는 헤이트스피치의 폭력으로 소수자들이 받았던 피해를 좌시하였던 죄를 고백하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된 복음선교의 사명으로서 이 과제에 대처하여 이 지상에 평화와 공생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추구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제 3 회 <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 국제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 사회에 대하여 일본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세계 및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2014 년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 및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외국인 주민기본법’ 혹은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바 헤이트스피치 등의 차별 행위를 위법화할 수 있는 국내법의 정비를 조속히 실행할 것.
  - 인근 국가들과 평화적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쟁 및 전후 책임에 대한 공정한 역사인식을 철저히 하고 학교 교육에 반영할 것.
  - 마이너리티를 향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를 비롯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문화 교육을 제도화할 것.
2. 우리는 일본의 시민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호소한다.
  -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다민족, 다문화 공생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외되었던 마이너리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응답해 줄 것, 마이너리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참여를 도모할 것.
3. 우리는 교회에 위탁된 복음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본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호소한다.
  - 일본 사회의 불의를 드러내는 자로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을 듣고, 인식하고, 공유할 것.
  - 마이너리티의 필요와 그 호소하는 바를 수용하는 것을 각 교파의 선교 정책으로 삼고 교파를 초월해서 이러한 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공동으로 행동하는 기회를 만들 것.
  - 일본 국내의 마이너리티 네트워크의 구축에 협력하며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선교센터’의 설치를 목표로 모든 교파가 협의를 지속할 것.
  - 일본 국내의 모든 종교 및 시민 단체가 가운데에서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추진할 것.
4. 우리는 공생의 장막을 세계로 넓히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호소한다.
  -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모든 교회가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을 극복한 경험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낸 이야기,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할 것.
  - 마이너리티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청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세계의 에큐메니칼 단체들로 하여금 인종 차별을 비롯 여러가지 형태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변화 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새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촉구할 것.
  - 3 월 21 일 국제연합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맞추어 세계의 여러 소수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

2015 年 11 月 21 日

제 3 회 <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KCCJ), 일본기독교협의회 (NCCJ), 일본기독교단 (UCCJ), 일본기독교회 (CCJ), 일본침례교연맹 (JBC), 일본침례교동맹 (JBU), 일본카톨릭난민이주 이동자위원회 (JCARM), 웨슬레재단 (Wesley Foundation), 일본성공회 (NSKK), 세계 교회협의회 (WCC), 캐나다연합교회 (UCC), 대만장로교회 (PCT), 시리아정교회 (Syrian Orthodox Church), 미국장로교회 (PCUSA), 캐나다장로교회 (PCC), Evangelische Mission in Solidarität(EMS), Evangelische Missionwerk in Deutschland(EMW), 연합감리교회 (UM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 (WCRC), 호주연합교회 (UCA), 남아공연합개혁교회 (URCSA), 아프리카 감독시온교회 (AMEZ), 기독교대한성결교회 (KMC), 대한예수교장로회 (PCK), 한국기독교장로회 (PROK), 기독교대한성결교회 (KEH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CWU), 대한성공회 (ACK)

# < KCCJ 제 53 회 총회기 > 제 1 회 정상임위원회 개칙



12월 11일 (금) 제 53 회 정기 총회기 제 1 회 상임위원회가 나고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나고야 교회의 따뜻한 환대와 속에서 23 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석 한 회의에서는 각 지방회와 위원회 보고를 한 후에 상정 된 안건을 심의했다. 승인 및 가결 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제 53 회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 (2) 연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인정하고, 힘든 연금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그 대책을 기구 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3) 중부지방회에서 “나가노교회의 종교법인 설립 규칙 및 대표 임원 승인” 건을 인정하고 각 교회에서 “종교법인 규칙” 의 개정을 촉구하기로 하다.
- (4) 임원회가 제안 한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조직을 승인하다.  
· 위원장 : 김성제, · 위원 : 김 건, 김신야, 김수남, 김성원, 사토 노부유키, 여성회 대표
- (5) 중부지방회로부터 “오카자키교회 허광섭목사의 해별와 지방회와의 화해” 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별 후 조치 등은 중부지방회에 맡기기로 하다.
- (6) 재정위원회로부터 “총회 재정의 최소 지출의 청원” 을 받아 들여 각 지방회와 위원회가 협력하기로 하다.
- (7) “재일대한기독교회 100 년사” 를 1,000 부 발간함에 따라서 총회에 할당 된 500 부를 각 교회에 분배하여 구매를 부탁하고, 1 권의 가격을 4,800 엔 (교회용 1 부 : 무료) 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회가 책임지고 대금을 총회에 납부하게 하기로 하다.
- (8) 2016 년 1 월에 5,000 부 발간 예정인 새로운 ‘한일 찬송가’ 1 권의 가격을 총회 교회는 2,500 엔, 외부는 3,000 엔으로 설정하고, 각 교회에 적극적으로 구입할 것을 호소하기로 하다.
- (9) 다음 상임위원회는 2016 년 4 월 15 일 (금, 10:00~18:00), 오사카 KCC 에서 하기로 하다.

( 보고 : 편집부 )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일은 과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 소녀의 결단의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재일대한 기독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를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Here am I,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your word.”

It all began with the acceptance, by one girl, of a blessed, but hard, fate.  
In this troubled time, we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wish to also follow God's will, with determination, to the end.  
We pray that your Christmas will be filled with the grace and love of God!

「わたしは主のはしためです。  
お言葉通り、この身に成りますように」

過酷な運命を引き受ける少女のこの決断の一言から、すべてが始まりました。  
この暗い時代に、わたしたち在日大韓基督教会も同じように、神のみ心に従う決断をしたいと思ひます。主の恵みと愛が溢れるクリスマスをお過ごしませう、心からお祈りいたします。

Rev. Dr. Sungjae Kim, Moderator  
Rev. Byungho Kim, General Secretary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